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1956년 창간된 월간 『考試界』가 2011년 6월로써 창간 55주년(통권 652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간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결호도 없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수 많은 독자제현과 양질의 글을 주셨던 필자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56년 창간된 월간 『考試界』는 주옥과 같은 법률논문과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관련 수준 높은 논문과 감동적인 합격기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법률문화의 창달과 인재양성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초창기의 암울했던 사회경제적 여건속에서도 수익보다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었고, 현재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멀리 보고 뚜벅뚜벅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시제도의 주류를 형성하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라는 제도가 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경우 수년 전 PSAT이 도입되는 등 시험방식에 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외무고시는 고시자체를 폐지하고 소위 외교아카데미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도 법조인 양성의 틀을 바꾸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2012년에 처음 실시됩니다. 기존 고시제도가 갖고 있었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도라는 틀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향후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기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정 상 훈

(월간 『考試界』 · 고시계사&멘틀 대표)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도 노정되고 있는 커리큘럼상의 문제, 재정적 문제, 기회균등의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도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무고시의 경우도 제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의 신분변화의 기회가 문턱에서부터 박탈되는 형태의 운영은 절대로 삼가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험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지는 주로 잡지를 통한 정보제공을 주로 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형태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eduall.kr)를 통해서도 직접 강의 형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각 시험내용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독자제현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대표를 포함한 전임직원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월간 『考試界』가 55년 동안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창립자이신 故 陳炳植 선생님, 1959년 1월호부터 1983년 8월호까지 발행해온 故 金彰燁 선생님, 主幹으로 수고하여 오신 張庚鶴 교수님, 故 崔炳煜 교수님, 安東燮 교수님, 그리고 權亨源 선생님, 黃永成 선생님,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金哲洙, 金容漢, 李尙圭, 李時潤, 故 姜求真, 金鍾源, 愈焄, 朴吉俊, 金基洙, 盧化俊, 李在祥, 李達坤 교수님, 또한 현재도 수고하고 계신 金鐵容, 鄭東潤, 任雄, 成樂寅, 白泰昇, 咸成得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